

진안 댄스 미디어 공연예술제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협력으로 유희공간·자연생태 활용 29~30일 진안 용담호미술관서 진행

진안 공간재움 발굴단(이하 발굴단)이 지역 유희공간과 자연생태를 활용한 진안 댄스 미디어 공연예술제를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번 예술제는 진안의 자연생태에 무용, 미디어, 음악, 연극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장르가 결합해 무용예술을 다원화시킨 형태다. 또한 지역의 유희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연예술축제로 업사이클링을 목적으로 29~30일 이틀 간 진안 용담호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진안중평국보존회와 김선이 무용가인 콜라보 공연을 시작으로 △프랑스 음악가 귀욤 마자르(Guillaume Mazard) △페넌팅 애니메이션 박두리 작가 △고무신무용단 △미디어 음악 그룹 소리샘 △허경미 무용단 △메타댄스 프로젝트 △극단 여명1919 △경화댄스시어터 △청소녀아트 체인지업 등이 참여 공연을 펼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예술제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JB 도민 지역문화정책발굴단'에 선정된 후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진안군 유희공간의 문화적 재생 가능성에 관한 첫 번째 수행과제로 설정되면서 추진됐다.

발굴단은 본래의 기능을 잃고 방치된 진안 용담호미술관의 변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진안군에 개발정책을 제안하고 중앙공



진안 댄스 미디어 공연예술제 포스터

모사업에 지원한 결과, 예술제는 기획력과 예술성 등을 인정받아 전북 최초로 민간예술단이

제가 '2021년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진안군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성과도 거뒀다.

이기간 대표이사는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문화예술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새롭게 시도하고 이를 예술가들이 주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이 단장은 "역사를 가진 지역의 공간들이 철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지역 예술가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예술제가 좋은 사례로 남아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굴단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JB 지역문화정책 발굴단 사업에 참여하고자 씨나Plant 김선이와 김문규, 진안중평국보존회 이승철, 강효석 사진작가 등 예술가들과 장애인가족연대 협동조합 이규홍, 고원애산공작소 임준연이 모여 만든 문화 소용 네트워크 모임으로 이번 예술제를 시작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자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정책연구팀(063-231-743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이병기 배예빈 임나경 정민기

이병기·최명희 청년문학상 수상작 선정

고등·대학 부문 수상자 4명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홍보기법사업회·최명희문학관(관장 최기우)이 공동 주관하는 2021 가림이병기청년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수상자 4명이 선정됐다.

가림 이병기청년문학상 대학 부문은 '가을으로부터'를 쓴 배예빈(한양대 1년) 학생이 고등 부문은 '휴일의 미술관'을 선보인 이예진(고양고 2년) 학생이 선정됐다.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대학 부문은 '해가 뜨기 전에'를 쓴 정민기(명지전문대학 2년) 학생이, 고등 부문에는 낭만주의 외계인을 쓴 임나경(인양고 3년)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부문 대학부 당선작 '가을으로부터'는 일상을 특별한 것으로 바꾸는 비밀스러운 순간에 대한 감각과 통찰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 부문 고등부 수상작 '휴일의 미술관'은 예측 못 할 내일을 살아야 하는 청춘의 고민이 군더더기 없고 절제된 문장으로 잘 담겨 있다는 평을 얻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시작하는 소설 대학부 당선작 '해가 뜨기 전에'는 깔끔한 문장으로 가독성을 높여 응모작 중 가장 돋보이는 작품으로 뽑혔다. 고등부 당선작 '낭만주의 외계인'은 공시 9수생의 지루하고 나른한 일상을 신선한 상상력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형상화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문학상은 238명이 500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시 부문에는 136명이 486편을, 소설 부문에는 102명이 104편을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김동원 총장은 "작품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알 수 있었고 더욱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면서 "전북대학교의 문화적 자부심인 이병기 시인과 '최명희 소설가'의 이름으로 발굴·육성되는 청년들이 세계적인 문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는 1955년 전북대신문 창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와 논문을 공모했던 '학생작품 현상모임'이 모태가 됐다. /장은성 기자

올해는 화상으로 즐겨요... 새만금 K-POP 축제, 내일 개막

코로나19 극복 염원 담아 31일까지 이틀간 진행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30일, 31일 양일간 '새만금 케이팝(K-POP) 축제' 개막을 알리며,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의 염원을 담아 아트워크(화상)로 즐기는 무대가 펼쳐진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새만금 케이팝 축제'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류문화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아트워크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미 새만금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노마드 축제(캠핑형 축제)에 무겁게 성장하고 있는 케이팝을 접목해 만든 오직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개막하는 30일 1일차 행사에는 새만금 사업을 현상화한 페넌팅 공연으로 포문을 열고, ▲개막식 ▲오세득 스타셰프의 캠핑요리, ▲이성준의 프리토크쇼, ▲청소녀 케이팝 공연회, ▲케이팝 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케이팝 콘서트는 새만금영상 무대를 배경으로 글로벌 댄스를 일으키고 있는 NCT127 정우와 민주, 리노가 진행을 맡아 케이팝의 여왕 씨엘과 가요계의 디바 에일리, 남신아라 불리는 위너원의 박지훈 등이 출연해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이날 공연은 당일 오후 3시 40분 MBC TV '쇼! 음악중심'을 통해 특별 방송될 예정이다. 주간이상준이 진행하는 '프리토크쇼'에서



는 경연대회 출신 가수인 박재정, 손승연 등이 출연해 미래 케이팝의 주인공이 될 경연 참가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경연 직전 기대감을 높여 축제의 열기를 더할 계획이다.

'청소녀 케이팝 경연대회'에서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선발된 본선 12팀이 경연을 펼치며, 대상 수상자(팀)은 다음날 노마드 공연의 사전 축하공연 무대에 오르는 영광도 누리게 된다. 31일 축제 2일차에는 전국 어디서나 캠핑을 하며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캠핑 캠프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새만금 골든벨 ▲노마드 공연, ▲할로윈 노마드 DJ파티, ▲불꽃쇼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국민밴드 '소란'의 고영배가 진행하는 '노마드 공연'에는 탄탄한 노래실력과 대중성을 갖춘 국민가수 김범수, '불후의 명곡'이 낳은 가수 알리, 싱어송라이터 신다정 등이 출연하며, K-트트의 대세로 떠오른 영타의 신명나는 무대도 즐길 수 있다. /유호성 기자

'새만금 골든벨'에서는 온 가족이 새만금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불꽃쇼'에서는 아름다운 새만금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웅장한 음악과 함께 화려한 불꽃이 새만금의 밤하늘을 수놓아 잊지 못할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케이팝 축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kpopfestival.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30일에 진행되는 케이팝 콘서트 제외)은 새만금개발청 유튜브(www.youtube.com/c/kzsd0912), 전주MBC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기원하고, 축제 후 더 멋진 축제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의미에서 11월 15일까지 '웃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에 새만금 케이팝 축제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3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개인 SNS(누리소통방) 계정에 업로드 한 후, 심사를 통해 푸진한 상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새만금 케이팝 축제'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참가자들의 안전과 방역을 최우선으로 축제를 준비했다"면서 "국내의 어디서든, 누구나 참가해 즐길 수 있는 축제인 만큼,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명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남원 향토박물관, 지역 출토 유물 특별전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에 위치한 향토박물관에서는 오는 10월 30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남원 출토 유물 특별전이 개최된다.

이번 유물 특별전은 남원지역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을 총 50점(50점)을 대상으로 40여점의 자료를 선보이며, 남원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유물 유적이 분포한 문화 예술의 땅이다.

특히 와당 유물에 있어서도 각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디자인과 각종 문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특별전은 남원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 중 실상사, 민복사지, 용성관지, 교동산성 등에서 나온 와당들을 대상으로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자 기획하였다. 와당은 기와를 막음하는 한옥의 건축재를 말한다.

특히 실상사는 1906년부터 2005년까지 8차례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에서 9세기 전후의 많은 와당들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민복사지는 7차에 걸쳐 중요 유구를 중심으로 발굴되었고, 이후 2014~2015년에도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민복사지는 전북의 대표적인 고



려시대 사찰이면서 동시에 조선시대 전기에 다시 중창된 사찰로서 그 건축 양식은 중요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립전주박물관, 전라문화연구원, 전북대학교박물관, 남원문화원 등의 협조를 얻어 관련 유물들을 대여 전시하며, 와당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걸쳐 있는 예술성이 뛰어난 자료들로서 남원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불교 미술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오페라단 콘서트오페라 '사랑의 묘약' 김제 온다

11월 12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

김제시민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11월 12일 오후 7시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다섯번째 이야기 국립오페라단 콘서트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선보인다.

'사랑의 묘약'은 도니체티의 대표작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잘 드러낸 코믹한 오페라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아름다운 아디나를 짝사랑하는 순수하고 어수룩한 총각 네모리노! 항상 재미있고 다양한 사랑을 꿈꾸는 아디나와 그런 아디나를 멀리서 지켜보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네모리노. 그러던 어느 날 네모리노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하는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가 후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 국립오페라단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국내 성악가와 무대 관련 스태프를 발굴 및 양성하는 등 한국 문화예술계의 모태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간 이격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080 안심콜,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한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11월 2일 오전 8시부터 현장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mp.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작업복
단체복

안전화
안전용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명찰, 로고
각종 인쇄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